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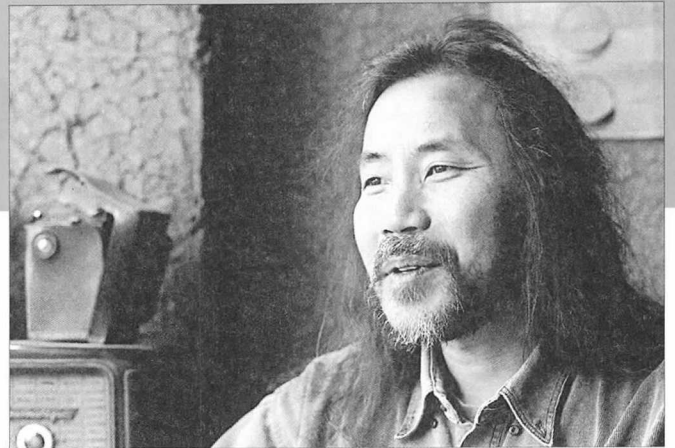
‘탈서구’를 외친 지 오래지만, 푸코와 들뢰즈는 ‘신중단지’ 모시듯 하면서도 샹카라와 라마누자는 모르는 게 우리 지식계의 현실이다. 더욱이 점두에 명상서가 쏟아져 나오면서 인도철학의 본래 모습은 상당히 왜곡돼 있다.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인도철학의 본령을 제대로 접한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이거룡씨(40, 동국대 강사)는 인도철학의 진면목을 소개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7년동안 《인도철학사》(라다크리슈난, 한길사) 번역작업에 매달렸다.

“천육백년전, 불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도와 사상적인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론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인도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국내에 없습니다. 인도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인도 본래의 사상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라다크리슈난은 인도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인도의 전통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낸 석학이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인도철학사》는 고대철학부터 중세철학까지 다루고 있다. 그중 1부에 해당하는 《인도철학사I》은 힌두교의 근본 경전이자 인도사상의 원천인 베다의 철학과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담았다. 2부에 해당하는 《인도철학사II》는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도사상으로 분류되는 불교와 《바가바드기타》를 다룬다. 3부에 해당하는 《인도철학사III》과 《인도철학사IV》는 정통 인도사상으로 분류

## 7년만에 완역한 ‘결정판’ 인도철학사

《인도철학사》 완역한 이거룡씨



이거룡씨

되는 ‘육과철학’ 즉, 상키야·요가·니아야·바이세슈카·미망사·베단타의 철학을 서술한다.

“인도철학은 인간의 현실적인 삶이 고통이라는 자각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도철학은 해탈을 추구하지요. 이때 해탈에 이르는 길을 요가라고 하는데, 《바가바드기타》 경전에서는 요가를 세가지, 즉 지식으로 해탈에 이르는 가나요가,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해탈에 이르는 박티요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나 헌신으로 해탈에 이르는 카르마 요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철학이 현대인들에게 ‘포기의 철학’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철학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인간이 가진 욕망대로 재산이나 명예를 쌓고, 후반기에는 쌓은 것을 버리고 숲과 거리에서 수행하는 것을 완성된 삶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현대문명은 ‘모으고’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상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가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한 것은 인도 델리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칠 즈음인 1993년 초. 7년 동안 그의 책상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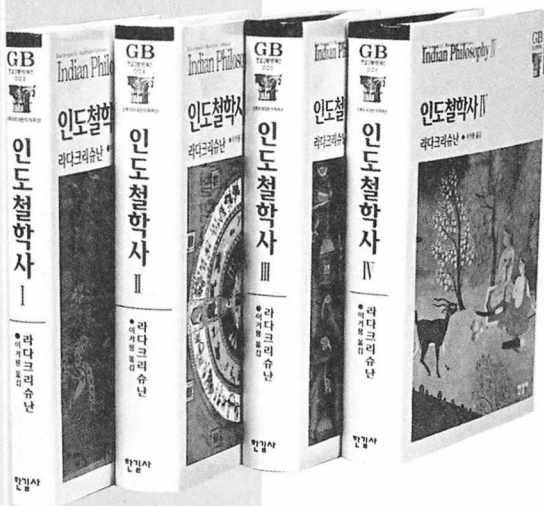
항상 《인도철학사》가 놓여 있었고, 바빠서 단 몇 줄만 옮기게 되더라도 매일 번역작업에 매달렸다.

그가 번역하면서 세운 원칙은 텍스트에 충실한 직역주의였다. 의역을 할 경우 꼭해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번역서에서 돋보이는 점은 1천 3백여개에 달하는 역주다.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기본개념과 어려운 어구를 최대한 쉽게 풀어 역주로 처리했다.

그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서의 문장과 단락의 길이가 너무 길어 애를 먹었다고 토로한다. 문장과 단락을 나누고, 내용에 따라 적당히 소제목 달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우리나라 맞춤법 통일안이 음역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돼 있는 점이었다.

“우리나라 맞춤법 통일안은 외국어를 표기할 때 경음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카리마와 까리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나라 맞춤법에 따르면 모두 카리마로 써야 합니다.”

그는 현재 인도의 근현대 철학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이 인도사상이나 힌두교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철학용어사전’도 곧 집필할 계획이다. - 김정은 기자



한길사/A5신/560면 내외/22,000원 내외